

보도시점 2024. 1. 24.(수) 배포 2024. 1. 24.(수)

이기철 재외동포청장, 민생현장 필리핀 동포사회 목소리 경청

- 코리아타운 방문해 활성화 방안 모색 ... 동포간담회서 재외동포정책 설명하고 애로사항 청취
- 한글학교 교사간담회서 '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바로 알리기' 사업 소개..재외선거 참여도 독려

-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.22~1.23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마닐라 코리아타운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다.
 - 또 동포간담회와 한글학교 교사 간담회를 열어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고, 동포사회의 의견을 경청했다.
- 이 청장은 23일 필리핀 영웅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대한 헌화를 시작으로 민생 투어에 나섰다.
- 이어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필리핀 동포사회 민생현장을 점검하고, 동포들과 코로나19이후 활기를 찾기 위해 분투 중인 동포들과 한인타운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다.
 - 이 청장은 “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”고 전하면서 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정부를 지향한다”고 말했다.
 - 현장에서 한인타운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한 CCTV 설치, 전 세계 한인타운 간 성공사례 공유, 한인타운 활성화 방안 컨설팅 등 한인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동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.

- 동포간담회에서는 재외동포청 출범의의와 ‘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로드맵’ 등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고 필리핀 동포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.

※ 동포간담회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1.23(화) 12:00~14:00, 주필리핀한국대사관
- 참석인원 :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, 김대중 민주평통 필리핀지회장 등 주요 동포단체장 19명

- 이기철 청장은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외국교과서 수록, 재외동포 사항 국내 교과서 수록을 통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, 귀국 재외동포 지원, 원폭피해, 고려인, 사할린, 다문화 동포 등 소외동포 보듬기 등 주요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했다.
- 필리핀 동포들은 한인회관 건립지원, 동포 장학사업 확대, 차세대 동포연수 등 안보교육 강화, 한-필리핀 경제인대회 지원 등 필리핀 동포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.

- 한글학교 교사간담회에서는 현지 한글학교 교사 대상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, 한국의 발전상이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, 이를 위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.

-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글학교 지원사업 문의를 비롯해, 한-필리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맞춤형 교재 개발 및 전문교사 양성, 다문화가족 부모 대상 한글교육 지원,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연합단체와의 소통창구 마련, 온라인 교사인증제 프로그램 확대, 한국의 발전상 관련 한글학교 교육용 콘텐츠 제공 등을 건의했다.

- 이기철 청장은 필리핀 방문시 간담회 등 매 계기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172
		담당자	사무관	이선호	032-585-3174